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 방안 연구

A Study on Effective Performance of Social Role of Public Libraries

이 용 훈(Yong-Hun Lee) *

심 효 정(Hyo-Jung Sim)**

초 록

21세기 지식정보시대 공공도서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 측에서 사회적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도서관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수행 방안으로 도서관 권리선언 제정, 독서실 기능 폐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인증제도 도입, 도서관 장서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o get social recognition and the basis of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the knowledge information age, Public libraries must recognize their social role clearly and perform it effectively.

For performance of advisable social role of public libraries, this study proposed that 1) establishment Library's Bill of Rights, 2) abolition of the function of 'reading room' of libraries, 3) reform of the assessment system and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improvement in service quality, 4) an epoch-making improvement of library collections.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목적, 공공도서관 사회적 역할,
public library, social role of public library, object of public library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blackmt@hitel.net)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swjgo@unitel.co.kr)

논문접수일자 200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12월 2일

1. 서론

2002년 8월 정부의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각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과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10월에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해방이후 비로소 정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도서관 발전정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발전계획이 과연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모든 사회적 기관은 그 지역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장치나 도구를 마련하며, 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배치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그 결과를 다시 역할을 부여한 지역사회에 환원시킨다(양재한 2000, 19).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유효한 투자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 목적에 대한 도서관측과 행정부문, 사회 일반의 인식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개인적 목적의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¹⁾. 따라서 자료의 대출, 참고자료 이용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지 않는 도서관 이용 목적의 전도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전도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사회적 장치로서의

자리 매김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인웅, 양재한 1997, 7). 따라서 향후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마련과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표방해 온 운영 목적의 변천을 살펴보고,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이유를 모색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목적, 즉,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새로운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

3. 공공도서관 목적의 변천

도서관은 사회적 장치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도 변화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적 도서관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목적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오늘날 공공도서관 목적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지난 과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일제시대 개화기 지식인들이 지식과 정보의 대중적 보급을 통해 국민의 자각을 일깨우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

1) 문화일보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이용자 중 성인 20.0%, 대학생 36.5%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좌절을 겪게 되고 결국 식민지시대 공공도서관은 식민정책의 구현장치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이연옥 2001, 15). 해방된 이후에는 미국에 의해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재건사업 주도권이 장악되어 결국 공공도서관 또한 미국용 기성품을 이식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와 방식, 시대적 필요와 그 우선순위 등에 기초하여 목적이 설정되지 못하고 미국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일반적 목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최성진 1974, 136-137).²⁾ 그러한 속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계속된 한국전쟁과 오랜 군사정권의 통치 및 경제제일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공부방으로 전락한 채로 존재했다(김세훈 외 2002, 8). 특히 군사정권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알 권리 확보를 둘러싼 정권과 시민대중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출판물을 위축시키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결국 도서관이 미국식 목적이라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꾸준히 사회의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공공도서관이 비로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달에 따른 정보화사회의 진입과 문화시대, 평생학습 고양, 효율성 중시 분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채 또다시 공공도

서관들이 디지털도서관이라든가 민간위탁, 명칭 변경, 각종 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밀려 도서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법에 제시된 공공도서관 목적은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³⁾에서는 교양, 조사, 연구, 레크리에이션이었다. 1987년 전면개정된 도서관법⁴⁾에서는 정보이용, 교양, 조사, 연구 및 교육·문화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전의 레크리에이션이 삭제된 대신 정보이용과 교육·문화활동이 추가되어 1980년대의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991년 도서관진흥법⁵⁾에서는 이를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으로 단순화하면서 교육의 개념을 평생교육으로 확대하였다. 1994년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⁶⁾에서는 1991년 도서관진흥법의 목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목적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 등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4. 21세기 한국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21세기를 지식정보사회, 문화의 시대라고도 한다. 그 외에도 평생학습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2) 미국의 경우 공공도서관 목적은 19세기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무료초등교육제도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 인식되었으며, 1930~40년대에 이르러서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정보제공'이 주요한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1979년 공공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비전통적 교육기관, 문화기관, 정보기관, 갱생기관으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만들었다.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970년대 이후에는 정보, 문화와 장애인봉사가 주요한 목적이 되었다(박인웅, 양재한 1997, 10).

3)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

4)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2호

5)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2호

6) 1994년 3월 24일, 법률 제4746호

있으며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 문제가 크게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서관 입장에서의 목적이 아닌 사회적 필요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1세기 우리나라 사회의 첫번째 주류현상은 정보사회로의 진입이다. 운영민은 정보사회는, 1) 탈 인쇄문명 시대이며, 2) 지식이 팽창하고, 3) 지식생산이 가속화되면 지식의 수명이 짧아진다, 4) 성찰성(reflexivity)이 높아진다, 5) 직업세계에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정리하고 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는 지구경제가 출현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운영민 2002, 59-75).

두 번째 현상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노동, 나아가 국가 전반의 전면적 유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해체하여 사회적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른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복잡한 이데올로기 장치를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효율화를 내세워 정부를 약화시키면서도 한 편으로는 오히려 정치나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세계를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이용훈 1999, 28-31).

세 번째 주류현상은 문화가 중요해 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문화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사회현상이 되었다. 그래서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로 규정짓는다. 또한 문화를 새로운 생산력의 원천으

로 인정하고 문화를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가 이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사회이며 대중매체의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의 국제화가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정보화나 신자유주의 이념이 결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문화는 개개인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 되었으며, 문화는 모든 부문에서 하나의 가치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네번째는 삶의 지역화 또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은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하는 제도이다. 즉 주민자치(citizen autonomy)는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 관료중심의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를 배제하고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또한 시민자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때 '시민'이란 여가와 교양,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보편적인 사람을 말하는 개념이다(이용훈 2002, 5-8). 따라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치능력을 갖춘 시민을 필요로 한다.

끝으로 평생학습사회 개념의 확산이다. 지식기반사회는 곧 평생동안의 자기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고령화사회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교육 필요성의 증가와 급격한 사회변화와 정보화 등에 따른 정보격차 심화, 부의 편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결속 와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시민사회 건설 필요성 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설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 교육인적자원부 2002, 1-2).

이렇듯 정보사회 도래,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

산, 문화의 중요성 증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평생학습사회의 도래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규명과 목적을 정의해야 한다. 현규섭은 21세기 공공도서관의 존재양식을, 1) 텍스트성으로의 복귀, 2) 정합과정에의 대응, 즉 정합과정을 실현시켜 나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사회기관, 3) 선형성(linearity)에 대한 사회적 발언 강화, 4) 여가사회에 대처, 즉 여가사회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원동력으로 존재, 5) 개방시스템에 대한 방향 설정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인용은 도서관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경제발전, 정보의 평등분배와 자아실현에 대한 역할로 각각 나누고, 그에 상응하여 사회교육기관, 자유로운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와 지식창출과 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을 제안하였다. 이진영은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센터, 레저여가선용센터, 문헌·디지털정보센터, 생활편의센터, 문화센터 등 5가지 기능 수행을 제시하였다. IFLA/UNESCO는 공공도서관을 지역의 지식관문으로 규정하고 개인과 집단의 평생학습, 자율적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Philip Gill 2002, 1). 또한 정보화시대에는 공공도서관은 지식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점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식자원을 찾는 것을 돕고, 그 자체가 지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UK 1998).

이와 같은 21세기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정보제공, 평생학습 지원, 문화활동을 통한 개인과 사회발전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오락과 여가활동 지원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효율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 방안

공공도서관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과 이념과 견해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활동을 통해 목적, 즉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Philip Gill 2002, 2). 이에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도서관 권리선언 제정 및 대사회적 활동 강화

도서관에 대한 역할전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대사회적 역할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계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대외적으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여는 일이 될 것이다.

신세기 공공도서관계는 무엇보다도 거시적 사고와 안목을 가져야 한다. 달리 말해서 행정논리와 문화기능, 도서관과 지역사회, 전통적 구성요소와 정보기술, 장서와 이용자의 경계영역에 위치하면서 인과관계 내지 상호작용을 받추하고 예측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부기능에 매몰되어 외부의 상황변화에 대처하지 못하

면 세기말에 경험한 해체위기는 재연될 것이다 (윤희운 2002, 57). 이러한 입장에서 1967년 제정된 도서관헌장⁷⁾을 재검토하여 도서관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맞는 새로운 헌장을 제정·공표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1999년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바 있는 '도서관인 윤리선언'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영의 철학적 기반과 실천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도서관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도서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채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변우열 2002, 5). 또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도 1997년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FAIFE, Committee for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를 결성하고 전세계적으로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1999년 3월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회원(세계 각국의 도서관협회와 도서관들)에게 제시한 원칙을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였다.⁸⁾ 변우열은 이제 우리나라도 도서관 권리선언이 필요한 상황

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 권리선언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지적자유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윤리위원회라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이 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도서관의 권리선언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선언 제정 과정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과 이해의 확산을 꾀해야 하며 실제 도서관에서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일선 도서관과 사서들의 참여를 확실하게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⁹⁾ 도서관 권리선언 제정과 공표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도서관계는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들, 즉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 저작권 문제, 여러 가지 검열의 문제, 정보 불평등의 문제, WTO 등과 같은 국제적 이슈 등에 대해 도서관의 입장과 원칙, 활동방향에 대해 늘 적극적으로 밝히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your library'라는 캠페인을 통해 미국사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도서관의 위상을

7) 1967년 4월 6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공공도서관 회의에서 제정된 것으로 '인류문화의 유산'을 보호하고 새 문화창조의 온상인 도서관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재확인하면서 5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이 헌장은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한 채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8) 이 선언문은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편집실이 번역하여 『도서관문화』41(6) 64면에 게재하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지적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도서관과 정보 전문직의 핵심적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9) 현재에도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기반으로 도서관의 핵심적 책무인 지적 자유를 확보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보이지 않고 있음은 아무래도 윤리선언 제정 과정에서 도서관과 사서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언들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서관과 사서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선언을 제정한 후에도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선언의 실천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이 일정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도서관 권리선언을 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과 사서들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ALA 2000).¹⁰⁾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침묵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도서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독서실 기능 폐지

도서관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 도서관들이 명실상부하게 도서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은 21세기에 들어서까지도 여전히 독서실 기능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영문은 1948년에 이미 도서관이 독서실로 전락한 것은 과거 일제가 도서관 경영을 학생에 대상을 두고 유지 발전시켜 온 때문에 결국 일제시대의 잘못된 습관과 과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어 도서관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¹¹⁾. 이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에서 독서실 기능을 배제해야 한다. 도서관은 장서와 전문인력이 핵심적 요소이지만 독서실 기능은 시설이 핵심적 요소이다. 문제는 도서관으로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장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으면서도 정작 도서관을 시설 중심인 독서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도서관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독서실 기능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서관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방식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과천정보과학도서관과 같이 독서실 기능을 배제한 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도서관이 독서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서관에서 독서실 기능을 배제, 즉 일반열람실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 스스로 규모의 축소를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도서관계가 연대하여 일반열람실 폐지를 결의하고 그의 필요성과 향후 대안 등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홍보자료 등을 만들고 일정 기간 적극적으로 홍보작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열람실 폐쇄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첫째, 지역 내 일정한 공간(동사무소, 마을회관, 청소년 시설 등)에 독서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일반열람실 폐쇄와 동시에 새로운 공부방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둘째,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도서관을 독서실과 분리하는 방안이 있다. 즉 도서관이 일순간 축소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서실 기능을 아예 도서관과 다른 기관으

10) 이 캠페인에는 세계 여러 나라 도서관협회들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신의 도서관'이라는 로고를 만들고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관련 활동은 없다.

11) 김영문, '도서관과 성인교육-사용과 이용에 있어서' 《文苑》『국립도서관보』, 31(1948.9.1.). 재인용: 이연옥, 2002. 『한국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로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어려울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일반열람실을 자료열람실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향유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지역주민과 일반열람실 이용을 위해 도서관 찾는 지역주민이 한 공간에서 만나서 서로의 영향력을 겨루도록 해 지역주민들이 어떤 도서관을 원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그 성패가 달려 있고, 일반열람실 폐쇄는 지역주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도서관은 일반열람실 폐지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문제 해결의 구체적 과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안정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지점에서 도서관계가 이러한 과제를 얼마나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헌신적이고 철저히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는가 하는 점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5.3 도서관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 강화

도서관이 사회적 역할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열람실을 폐지해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이용자들이 피부로 도서관의 가치

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인 서비스 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는 도서관 운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가는 문화관광부가 매년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평가와 서울특별시 시민만족도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평가, 그리고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내 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 등이 있다. 이들 평가는 도서관 운영을 관할하는 행정당국에 의해 도서관 운영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서열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도서관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특성과 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도서관 운영성과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들은 외부적 평가에 앞서 스스로 냉정한 자기평가를 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현재 공공도서관과 관련해서는 1981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기준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양적 기준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도서관들이 효율적인 자기평가를 위해서는 시급

하게 21세기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¹²⁾

도서관의 내부의 평가활동 강화와 함께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새로운 시대는 모든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서비스 품질인증제도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인증제도는 품질을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관리프로세스의 내부기관이 표준을 설립하거나 외부 인증기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축된 품질평가시스템은 조직의 품질활동을 내부표준이나 인증기준과 비교·측정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해 간다(이상복 2002, 212). 내부적인 자체평가와 병행하여 외부적인 서비스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간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회적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인증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계적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품질인증제도는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속성과 제정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 수상 및 인증 프로세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과 평가기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가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4 도서관 장서 부문의 개선

지식·정보 집적의 전형적인 형태가 도서관

의 장서라고 할 때, 도서관의 장서가 편견과 왜곡, 허위와 조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체가 현대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의 회복에 대해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행동양식을 지니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과 정보의 축적은 개별적인 지식과 정보가 갖고 있는 편향이 단순한 축적 상태를 넘어 확대·증폭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그 위에 또 하나의 현실을 쌓아 올리려는 '기정사실화'의 연속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이런 형식으로 축적되어 왔다면,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문화의 역할이 그러하듯이 '비뚤어진 삶의 방식을 경고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편보다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고 조장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영기 2001, 6).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장서 부문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문학부문 장서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구체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2001년 문화관광부 도서관 평가에서도 보면 문학분야 장서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서관이 21.4%(전년도는 3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장서 구성은 도서관이 도서대여점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베스트셀러나 주민이 원하는 자료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수정하고, 도서관은 사람들이 손쉽게 구해볼 수 있는 책들이라면 주

12)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2000년부터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 기준안이 채택되면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들에게 '그 책은 스스로 구해보십시오. 우리는 대신 이런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사노 신이치 2001, 355). 즉 단순히 이용자가 많이 찾기 때문에 이들의 기호에 들어맞는 책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무겁고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책을 외면해 버리는 식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렇게 하여 축적된 장서가 도서관대여점의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김영기 2001, 15).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요구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민주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지원시설로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생산하는 각종 자료를 수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치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바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는 크게 증가될 것이다. 아울러 지식정보시대에 걸맞게 단행본 위주에서 정기간행물 중심으로 자료 수집과 활용의 비중이 옮겨가야 한다. 도서관이 이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할 때 비로소 다른 시설과 차별성이 생길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와야 할 확실하고도 차별적 이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장서개발과 관련하여 또 언급할 수 있는 과제로는 기증자료의 문제와 정기간행물의 문제이다. 도서관은 하나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따라서 일정하게 검증된 공공성에 근거한 지향성

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아무 책이나 수용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증은 반드시 도서관의 입장과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차별적 기증을 도서관이 수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서관을 질식시킬 가능성이 높다. 도서관이 필요한 책·자료 목록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이 범주 안에서 기증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출판사에 무료기증을 요청하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도서관 장서개발이 우리나라 출판산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서관이 책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의 관여 효과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책을 정가로 구입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 3항에 의해 간행물의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도서관의 장서는 다수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향후 공공대출권¹³⁾ 제도도입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은 스스로 간행물의 정가구입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출판 등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회부문의 갈등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도서관 장서개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원의 크기와 배분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여전히 자료구입비가 크게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구해볼 수 없는 책과 자료부터 우선 구비한다는 점을 명확하

13) 대여권은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이고 공공대출권은 도서관등의 비영리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출하는 것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이다. 유럽에서는 저작자에게 대여권과 공공대출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음악저작물과 음반의 대여권을 제외하고는 대여권과 공공대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서관대여점의 확산 등을 이유로 간행물에 대해서도 대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게 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비용의 문제는 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는 결국 도서관 스스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며 자긍심, 자신감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장서 부문의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수집과 보존, 활용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결론

21세기 지식정보시대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인정받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 측에서 사회적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사회 도래,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문화의 중요성 증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평생학습사회의 도래가 주요한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여 정보제공, 평생학습 지원, 문화 활동을 통한 개인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도서관이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권리선언 제정, 독서실 기능 폐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인증제도 도입, 도서관 장서 부문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부문에서의 개혁과제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계는 자신들 안에서만 주장하고 활동하는 방식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회영역과도 만나 도서관과 도서관이 감당해야 할 알 권리와 지적 자유, 표현의 자유 확장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독서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운동은 궁극적으로 도서관 활성화로 귀결되고 있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가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도서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할 때 이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은 또다시 자신의 사회적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 노력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최일선 공공도서관 한 곳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별 도서관들의 노력에 대한 전체 도서관계의 지지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개별 도서관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관종별, 지역별 도서관 단체들은 분화와 통합 전략으로 더욱 전문화해 가면서도 전체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모든 도서관과 관련 단체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도서관학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며, 특히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들의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활동 강화가 요구된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특히 도

14)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운동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의 시민단체와 출판계, 도서관계 대표적 단체들이 참여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책 읽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2001년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등에 대한 도서관 투자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서관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늘 대화하며 도서관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실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정책과). 2002. 1. 29.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세훈 외. 2002.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영기. 2001.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왜곡 ; 공공도서관 장서와 관련하여. 『도서관콘텐츠확충과 책읽는사만들기국민운동 제1회 국민토론회 '도서관 장서, 이대로 좋은가?'』. 서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문화일보. 2002. 『국민독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테일러 벨슨 소프레스.
- 박인용. 2000. 사회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1): 23-39.
- _____. 양재한. 1997. 한국 공공도서관의 정보제공기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서관학논집』, 26: 479-502.
- 변우열. 2002. 도서관의 자유와 권리선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3): 1-36.
- 사노 신이치. 2001. 『DARE GA 'HON' O KOROSU NO KA』. PRESIDENT SHA: Tokyo. 한기호 옮김. 2002. 『누가 책을 죽이는가』. 서울: 시아출판사.
- 양재한. 2000. 우리 문헌정보학의 실천성 확보를 위한 반성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4): 91-110.
- 윤영민. 2002. 정보사회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남산도서관 개관 80주년 기념학술발표회』. 서울: 남산도서관.
- 윤희운. 2002.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안. 『도서관』, 57(1): 40-79.
- 이상복. 2002.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인증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11-231.
- 이용훈. 1999. 구조조정 시기의 도서관과 사회가 나아갈 길. 『부산도서관연구회 세미나』. 부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_____. 2002. 지역사회와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이용자 관리과정 (사서교육훈련교재 2002-선택13)』.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이진영. 2001. 『공공도서관 운영론』. 서울: 아세이문화사.
- 조형진. 1996. 공공도서관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실천경영 방향. 『도서관』, 51(4): 45-55.
- 최성진. 1974. 도서관법 중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블리아』, 2: 132-177.
- 현규섭. 2002. 21세기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 『남산도서관 개관 80주년 기념학술

발표회』, 서울: 남산도서관.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USA.
2000. “@yourlibrary.” [cited 2002.
11.20.].
〈<https://cs.ala.org/@yourlibrary/>〉.
Gill, Philip.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
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

인』, 장혜란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UK. 1998. “New Library: The
People’s Network.” [cited 2002.
11.20.].
〈[http://www.ukoln.ac.uk/services
/lic/ewlibrary/full.html](http://www.ukoln.ac.uk/services/lic/ewlibrary/full.html)〉